



단일 의과대학에서 학생 선발 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이근미¹, 황태윤², 박소영³, 최형철⁴, 서완석⁵, 송필현⁶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¹가정의학교실, ²예방의학교실, ³생리학교실, ⁴약리학교실, ⁵정신건강의학교실, ⁶비뇨기과학교실

Student selection factors of admiss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one medical school

Keunmi Lee¹, Taeyoon Hwang², So-young Park³, Hyoungchul Choi⁴, Wanseok Seo⁵, Philhyun Song⁶

Departments of ¹Family Medicine, ²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³Physiology, ⁴Pharmacology, ⁵Neuropsychiatry, and ⁶Ur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first year medical students in one medical school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student selection factors of admission.

Methods: The admission scores of student selection factors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 grade point average [GPA], English test score and interview) and demographic information were obtained from 61 students who had interviewed (multiple mini interview [MMI]) for admission (38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in 2014, 23 medical college-transfer students in 2015). T-tests and ANOVA were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udent characteristics. Correlations between admission criteria scores and academic achievements were examined.

Results: MEET score was higher among graduate medical students than medical college transfer students among student selection factors for admiss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grade medical school between age, gender, region of high school, years after graduation and school system. The lowest interview score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hievement in problem-based learning (PBL) ($p=0.034$). Undergraduate GPA 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st grade total score ($r=0.446$, $p=0.001$) among admission scores of student selection factors.

Conclusion: Students with higher GPA scores tend to do better academically in their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In case of interview,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lead to differences except for PBL.

Keywords: Student selection; Admission; Academic performance; Medical school

서 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의 학생 선발 시에는 학부성적

Received: April 28, 2017, Revised: June 5, 2017

Accepted: June 5, 2017

Corresponding Author: Keunmi Le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70 Hyeonchung-ro, Nam-gu, Daegu 42415, Korea
Tel: +82-53-620-3180, Fax: +82-53-654-2413
E-mail: kmlee@yu.ac.kr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GPA), 공인영어성적, 의학 교육입문검사(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 성적,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 대학마다 선발인재상에 근거하여 다양한 요소들로 평가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라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대학에서도 의전원에서와 거의 동일한 입학전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의과대학으로서는 인지적인 영역 이외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감추어진 태도, 가치관, 동기 등 비인지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Copyright © 2017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러한 비인지적 역량은 면접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비인지적 요소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면접점수가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없거나 역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1-3]. 그러나, 최근 입학면접에서 다면인적성검사(multiple mini-interviews, MMI)를 사용한 국내 연구에서는 MMI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에게서 의학과 과정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4], MMI로 면접을 시행한 의전원에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MMI 점수가 인문사회의학 교과목들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5]. 또한 학사편입제도로 입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학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성적이 의학과 학생들과 차이가 없거나 다소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6]. 의전원의 경우 MEET, GPA, 공인영어 성적, 구술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학 전형요소가 학업성취도 및 졸업 후 의사로서의 수행 능력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7-8]. 그러므로 이러한 각 전형요소들이 의학과에 입학 후 학업 성취도와 잘 연관이 되는지 검토함으로써 학생선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단일 의과대학에서 입학생들의 특성과 학업성취 양상을 파악하여 역량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인재선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학생의 특성에 따른 입학성적 및 의학과 1학년 학업성취도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입학 전형 요소 및 MMI로 평가한 면접 점수와 의학과 1학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의전원과 의과대학 병행 체제인 단일 의과대학에서 면접 전형으로 MMI를 시행한 2개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4학년도 의전원 수시와 정시 입학생 38명과 201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으로 입학한 학생 23명, 총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2014학년도 의전원 수시 입학전형의 경우 단계별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으로 4배수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의 합, MEET 성적과 면접고사 성적

을 종합하여 19명을 선발하였다. 2014학년도 의전원 정시의 경우 1단계에서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MEET 성적으로 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19명을 선발하였다. 201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의 경우 1단계에서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MEET 성적, 서류평가(evaluation of documents)를 포함하여 4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의전원 입학전형요소와 동일하게 서류평가성적을 제외한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MEET 성적, 면접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23명을 선발하였다. 서류평가의 경우 학업 능력 및 발전가능성, 봉사정신, 대인관계 및 리더십, 자기소개서를 통한 종합평가를 주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면접평가는 학업능력을 제외한 인성,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면접문항개발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5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인성영역 중 3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MMI 형식으로 출제하였다. 면접평가는 영역당 2명의 면접관이 10분씩 평가하였다. 인성영역으로 평가한 부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자기주도성, 리더십, 책임감, 도덕성이었다.

의학과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의학과 1학년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 성적의 총점과 전국단위로 학년말에 시행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 성적(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score)으로 평가하였다. 의학과 1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으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질병의 원리와 인체 반응’, ‘분자의학’, ‘신경계와 인체반응’, ‘근육골격학’, ‘영양과 대사’, ‘인간관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PBL’이 있으며, 각 교과목은 지필평가, 과제평가, 실습 평가, 태도와 출석 등으로 성적을 평가한다. 각 학년의 성적은 해당 학년도에서 의학과 1학년의 각 교과목과 전체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계산한 각 교과목과 전체성적의 T 점수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는 IBM SPSS version 22.0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각 입학 전형 요소별 성적과 의학과 1학년 학업성적의 차이는 t-검정 혹은 Mann-Whitney 검정, 그리고 ANOVA 혹은 Welch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입학 전형 요소와 의학과 1학년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인성 영역 면접

성적 그룹간의 의학과 1학년 학업성취도 비교는 ANOVA로 검증하였다. 통계 유의 수준은 95% 신뢰구간에서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대상자 특성

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27.6 ± 2.4 세로 남학생 38명, 여학생 23명 총 61명이었다. 학부 졸업 후 1년 이내인 학생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 고등학교 지역은 서울경기지역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도 지역은 32.8%였다. 학교형태(의전원, 의과대학 학사편입), 학부 졸업 후 연도, 출신 고등학교 지역,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 기초종합평가 성적, 그리고 입학전형 요소별 성적의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른 입학 성적의 차이

입학전형 요소 중 MEET 성적은 28세 이상 군에서 27세 이하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t=2.119, p<0.05$), 의전원 입학생이 학사편입생의 경우보다 MEET 점수가 높았다($t=5.309, p<0.05$). 성별, 출신 고등학교 지역, 졸업 후 연도에 따른 학부성적, MEET 성적, 면접성적, 공인영어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의학과 1학년 학업성적 차이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은 연령별, 성별, 출신 고등학교 지역, 학교형태(의전원 혹은 학사편입생), 졸업 후 연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의학과 1학년 말에 시행하는 기초종합평가 성적은 연령별, 성별, 출신 고등학교 지역, 학교형태(의전원 혹은 학사편입생), 졸업 후 연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4. 면접성적에 따른 의학과 1학년 학업성적 차이

전체 면접성적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과 기초종합평가 성적은 그룹 간 차이가 없

Table 1. Characteristics

Variable	Male (n=38)	Female (n=23)	Total (n=61)	p-value ^{a)}
Age (year)	27.8 (2.4)	27.4 (2.3)	27.6 (2.4)	0.546
School system				0.720
Medical college (transfer)	15 (24.6)	8 (13.1)	23 (37.7)	
Graduate medical school	23 (37.7)	15 (24.6)	38 (62.3)	
After graduation (year)				0.086
0-1	28 (46)	11 (18.1)	39 (63.9)	
2-3	6 (9.8)	6 (9.9)	12 (19.7)	
4-7	4 (6.6)	6 (9.9)	10 (16.4)	
Region of high school				0.076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19 (31.1)	9 (14.8)	28 (45.9)	
Gyeongsang province	15 (24.6)	5 (8.2)	20 (32.8)	
Other province	4 (6.6)	9 (14.8)	13 (21.3)	
Admission criteria score				
GPA	196.0 (2.4)	197.1 (2.1)	196.4 (2.3)	0.064
MEET score	323.1 (10.0)	319.5 (10.8)	321.7 (10.4)	0.198
English achievement	97.9 (1.1)	98.1 (0.8)	98.0 (0.9)	0.474
Individual Interview	88.9 (8.1)	90.7 (6.3)	89.5 (7.4)	0.361
Evaluation of documents	184.5 (3.6)	185.8 (3.1)	184.9 (3.4)	0.387
First grade total score	50.9 (7.4)	48.3 (5.6)	49.9 (6.5)	0.397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53.4 (9.2)	52.2 (8.4)	53.0 (8.8)	0.649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or number (%).

GPA,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a)}p-values are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or ANOVA.

Table 2. Admission criteria score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	GPA	t (F)	p-value	MEET	t (F)	p-value	Interview	t (F)	p-value
Age (year) ^{a)}									
<27	196.7 (2.1)			318.9 (10.2)			84.9 (9.2)	t=1.444	0.154
≥28	196.2 (2.5)	t=0.796	0.429	324.4 (9.9)	t=-2.119	0.038	80.3 (14.7)		
Gender ^{a)}									
Male	196.0 (2.4)	t=-1.889	0.064	323.1 (10.0)	t=1.303	0.145	81.4 (13.4)	t=-0.921	0.361
Female	197.1 (2.1)			319.5 (10.8)			84.5 (10.5)		
School system ^{a)}									
Medical college	195.8 (2.2)	t=-1.597	0.116	314.2 (9.6)	t=-5.309	0.000	81.3 (7.0)	t=-0.601	0.484
Graduate medical school	196.8 (2.3)			326.3 (7.9)			83.3 (14.8)		
Region of high school ^{b)}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195.9 (2.3)	F=1.525	0.226	321.4 (9.7)	F=0.126	0.881	84.4 (10.3)	F=1.357	0.265
Gyeongsang province	197.1 (2.4)			321.4 (11.0)			78.9 (13.8)		
Other province	196.5 (2.0)			323.0 (11.5)			84.4 (13.9)		
After graduation (year) ^{b)}									
0-1	196.2 (2.2)	F=2.375	0.102	323.3 (10.0)	F=1.181	0.314	83.1 (13.3)	F=1.61	0.852
2-3	197.7 (2.4)			318.7 (8.9)			82.3 (9.3)		
4-7	195.8 (2.4)			319.5 (12.9)			82.6 (12.4)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GPA,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a)}p-values from independent t-test.^{b)}p-values were obtained by ANOVA**Table 3.** Comparison of first grade total scor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score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	First grade total score	t (F)	p-valu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score	t (F)	p-value
Age (year) ^{a)}						
<27	50.1 (6.9)	t=0.205	0.838	52.8 (8.6)	t=-0.216	0.829
≥28	49.8 (6.9)			53.0 (9.1)		
Gender ^{a)}						
Male	50.9 (7.4)	t=1.430	0.158	53.4 (9.2)	t=0.483	0.631
Female	48.3 (5.6)			52.2 (8.4)		
School system ^{a)}						
Medical college	48.6 (4.8)	t=-1.062	0.224	52.0 (10.3)	t=-0.535	0.595
Graduate medical school	50.6 (7.6)			53.4 (8.0)		
Region of high school ^{b)}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49.7 (6.4)	F=0.888	0.417	52.3 (10.3)	F=0.519	0.598
Gyeongsang province	48.0 (6.4)			51.7 (6.2)		
Other province	51.4 (7.7)			54.6 (8.9)		
After graduation (year) ^{b)}						
0-1	50.7 (6.7)	F=1.099	0.341	53.5 (6.9)	F=0.408	0.672
2-3	48.0 (6.4)			54.3 (14.0)		
4-7	51.4 (7.7)			50.7 (7.5)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p-values from independent t-test or Mann-Whitney test. ^{b)}p-values are calculated by ANOVA or Welch test.

었으나, 의학과 교과목 중 PBL 성적은 전체 면접성적이 낮았던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F=3.591$, $p=0.034$) (Table 4).

5. 입학전형 요소와 의학과 1학년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은 입학전형 요소 중 학부성적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446$, $p<0.001$), 학부대학 졸업 후 연도가 높을수록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r=-0.232$, $p=0.083$). 면담성적의 경우에는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90$, $p=0.029$). 기초종합평가 성적은 입학전형 요소 중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각 교과목 비교에서는 학부성적만이 ‘인체와 구조와 기능’, ‘질병의 원리와 인체 반응’, ‘분자의학’, ‘신경계와 인체 반응’, ‘근육골격학’, ‘영양과 대사’, ‘인간관계’ 교과목 성적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전형 요소 중 학부성적이 높을수록 의전원 혹은 의학과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면접성적이 낮았던 학생은 PBL 성적이 낮았다.

성별에 따른 의학과 전 학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안 등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업성취도와는 무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의학교육 과정에서는 성별에 무관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1,10]. 나이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연구 결과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무관하였으며, 이는 이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 James와 Chilvers는 연령이 높은

Table 4. Comparison of PBL, first grade total scor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score according to interview score

Variable	Interview score group			F	P -value ^{a)}
	Highest (n=12)	Middle (n=31)	Lowest (n=14)		
PBL	54.5 (10.1)	53.4 (9.1)	45.9 (10.1)	3.591	0.034
First grade total score	49.2 (4.5)	49.4 (7.4)	51.6 (7.4)	0.585	0.561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51.9 (8.1)	52.3 (9.0)	55.2 (9.0)	0.606	0.549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BL, problem based learning.

^{a)} p -values are calculated by ANOVA.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dmission criteria score and academic achievement during first grade student^{a)}

Subject	GPA	MEET	English score	Interview	After graduation (year)	Evaluation of documents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0.314 ($p=0.018$)	0.212 ($p=0.113$)	-0.005 ($p=0.971$)	-0.204 ($p=0.127$)	-0.340 ($p=0.100$)	0.279 ($p=0.247$)
Pathogenic mechanism and human body's responses to disease	0.420 ($p=0.001$)	0.100 ($p=0.459$)	0.033 ($p=0.805$)	-0.330 ($p=0.012$)	-0.134 ($p=0.322$)	0.445 ($p=0.056$)
Molecular medicine	0.429 ($p=0.001$)	0.130 ($p=0.319$)	-0.134 ($p=0.319$)	-0.047 ($p=0.727$)	-0.178 ($p=0.185$)	0.125 ($p=0.610$)
Nervous system and related body responses	0.266 ($p=0.045$)	0.033 ($p=0.806$)	0.071 ($p=0.601$)	-0.322 ($p=0.015$)	-0.128 ($p=0.342$)	0.298 ($p=0.216$)
Musculoskeletal system	0.475 ($p=0.000$)	-0.010 ($p=0.942$)	0.214 ($p=0.110$)	-0.187 ($p=0.164$)	0.033 ($p=0.809$)	0.319 ($p=0.183$)
Nutrition and metabolism	0.361 ($p=0.006$)	0.066 ($p=0.625$)	-0.007 ($p=0.960$)	-0.365 ($p=0.005$)	-0.173 ($p=0.199$)	0.123 ($p=0.617$)
Human relationship	0.275 ($p=0.039$)	0.171 ($p=0.204$)	0.003 ($p=0.981$)	-0.231 ($p=0.084$)	-0.046 ($p=0.732$)	0.354 ($p=0.137$)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0.229 ($p=0.087$)	-0.175 ($p=0.192$)	-0.069 ($p=0.611$)	-0.015 ($p=0.912$)	-0.107 ($p=0.430$)	0.147 ($p=0.276$)
PBL	0.161 ($p=0.232$)	0.023 ($p=0.867$)	-0.021 ($p=0.878$)	0.192 ($p=0.152$)	0.150 ($p=0.265$)	0.004 ($p=0.986$)
First grade total score	0.446 ($p=0.001$)	0.158 ($p=0.240$)	0.020 ($p=0.882$)	-0.290 ($p=0.029$)	-0.232 ($p=0.083$)	0.441 ($p=0.590$)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	0.240 ($p=0.072$)	0.149 ($p=0.270$)	-0.081 ($p=0.551$)	-0.147 ($p=0.461$)	-0.100 ($p=0.357$)	-0.277 ($p=0.250$)

GPA,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PBL, problem based learning.

^{a)} p -values are calculat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r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학생들이 오히려 기초의학 성적이 좋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이 어린 학생들이 기초의학 성적이 좋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마다 입시전형과 교육과정이 다양하여 생기는 결과로 생각된다[8].

본 연구에서는 학부 대학 졸업 후 연도가 높을수록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이 낮았는데, 의학과 1학년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내어야 하므로 이는 학부졸업 후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순발력과 암기력이 떨어져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면접에서 지역에 따라 면접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따라 분류해 보았으나,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따른 MMI 성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따른 의학과 1학년 전체 학업성취도도 차이는 없었다. 입학 당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MEET 성적이 학사편입생 보다 높았으나,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과 기초종합평가 성적은 의전원과 학사편입생의 경우 점수 차이는 없었다.

입학전형요소 중 면접점수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연관이 없거나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일부 MMI와 의과대학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본 김 등의 연구에서는 인문사회의학 과정 일부 과목이 학업성취도와 보통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수기교육과 필수 임상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1-3,5,11]. 본 연구에서는 의학과 1학년의 전체 성적 및 기초종합평가 성적은 면접 성적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BL 과목만 면접성적 그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면접평가가 비인지적 요소를 평가하므로 의학과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임상진료 현장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과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입학전형요소 중 학부성적과 관계가 있었는데, 학부성적이 높았던 학생이 의학과 1학년 전체 성적이 좋았다. 학년말에 시행하는 전국단위의 기초종합평가 성적의 경우에는 입학전형요소들과의 상관관계는 없었는데, 전국단위의 기종평의 경우 평가가 범위가 본교의 학사과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실제 배우지 않은 영역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박 등의 연구에서 학부 GPA 점수가 높을수록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업성취도가 높았던 것과 일부 일치한다[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 의과대학에서 재학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의학과 1학년의 학업성취도만을 평가하였으므로 기초의학 교육과정만을 보았다는 점이다.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비인지적 역량은 향후 의사로서의 직무를 통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전형을 시행한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개 학년도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학생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복귀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마다 MMI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 오던 의전원과 학사편입학 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평가 요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연구가 현재 수능 위주의 의과대학 학생선발 전형에서 비인지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다방면의 평가요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전형 요소 중 학부성적이 높을수록 의전원 혹은 의학과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면접의 경우 PBL을 제외한 의학과 1학년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학생선발에서 대학의 교육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므로 향후 전체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후 역량과 연계하여 성취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o declare.

ORCID

Keunmi Lee, <https://orcid.org/0000-0003-3878-6574>

REFERENCES

- Park KH, Hong DH, Oh JH, Park YB, Shin DJ, Lee YD. The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s of students at Gachon

-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06;18:289-96. Korean.
- 2. Kim HW, Ko HS, Lee MS, Nam JH, Kim WD, Lee JD. The influence of admission characteristics on premedical school achievement at a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02; 14:257-68. Korean.
 - 3. Rahbar MH, Vellani C, Sajan F, Zaidi AA, Akbarali L. Predictability of medical students' performance at the Aga Khan University from admission test scores, interview ratings and systems of education. Med Educ 2001;35:374-80.
 - 4. Kim DH, Hwang J, Kim EJ, Yoon HB, Shin JS, Lee S. How different are premedical freshmen who enter after introducing a multiple mini-interview in a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14;26:87-98. Korean.
 - 5. Kim JK, Kang SH, Lee HJ, Yang J. Can the multiple mini-interview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14;26:223-9. Korean.
 - 6. Lee YC, Yeo SH, Lee WK, Kang DS, Kang E, Kwak YS, et al. The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admitted after baccalaureate level. Korean J Med Educ 2003;15:1-10. Korean.
 - 7. Geffen LB. The case for graduate schools of medicine in Australia. Med J Aust 1991;155:737-40.
 - 8. James D, Chilvers C. Academic and non-academic predictors of success on the Nottingham undergraduate medical course 1970-1995. Med Educ 2001;35:1056-64.
 - 9. Ahn D, Im H, Kim KS. Correlation study of the scores of entrance examination, graduation examination and national licensure examination at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Korean J Med Educ 2000;12:91-6. Korean.
 - 10. Lee SJ, Choi W, Kim SY, Choi JW. Correla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with cognitive admission variables and demographic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09;21:59-66. Korean.
 - 11. Basco WT Jr, Gilbert GE, Chessman AW, Blue AV. The ability of a medical school admission process to predict clinical performance and patients' satisfaction. Acad Med 2000;75:743-7.